

창릉동 주민자치회

창릉동 주민자치회
회장



밥할머니 교육원

- 교육적 선양 행사
- 체험 학습장 조성
- 추향 제례 및 연구

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행정간사

기획행정 분과장

주민자치의 마을

- 마을기획 총괄
- 주민자치사업
- 주민자치역량
- 교육강화실시

지역발전 분과장

협업과 소통의 마을

- 주민총회 개최
- 각 직능단체장 협의체 간담회
- 프리마켓개최

문화복지 분과장

나눔과 문화의 마을

- 마을기획 총괄
- 주민자치사업
- 주민자치역량
- 교육강화실시

지방분권 분과장

자치시범 마을

- 주민총회 개최
- 각 직능단체장 협의체 간담회
- 프리마켓개최

경기도 고양군에서 → 서울특별시로 편입 상황



용담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동, 화기동, 휘경동, 이문동, 제기동, 답십리동, 용두동

◆ 경기도 고양군 - 서울특별시 성저십리 지역

-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 1936년 4월 1일 경성부 편입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 194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편입
-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 194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편입
-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 1936년 4월 1일 폐지
-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 1936년 4월 1일 경성부 편입
-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 194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편입

◆ 경기도 고양군 - 상저십리 행정구역

▶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악동, 신수동, 구수동, 창전동, 하중동, 신장동, 당인동,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염리동, 용강동, 대흥동, 토정동, 상수동

▶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연남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대현동, 창천동, 신촌동, 봉원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연희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산동, 수색동

▶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응암동, 신사동, 구산동, 역촌동, 대조동, 갈현동, 불광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홍은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홍지동, 산영동, 구기동, 평창동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안암동, 종암동, 정릉동, 장위동, 석관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보문동, 길음동, 돈암동, 동소문동, 삼전동, 동선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변동, 수유동, 우이동, 미아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능동, 자양동, 구의동, 광장동, 군자동, 중곡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성수동

▶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용봉동, 행당동, 상왕십리동, 마장동, 사근동, 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동, 동빙고동, 서빙고동, 주성동, 보광동, 한남동,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홍인동, 황학동, 무학동

서울특별시 성저십리 지역

서울특별시 성저십리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용산구, 광진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구기동, 평창동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홍인동, 황학동, 무학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창릉동 소식 제5호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도동복합 마을 창릉동

자치신문

발행일 | 2019년 12월 20일 발행인 | 전성원 발행처 | 창릉동주민자치회 편집장 | 김광호 편집위원 | 진경선, 조순영, 이덕연, 이정자, 정찬영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30 TEL | (02)381-9731 FAX | (02)381-9732

고양시 창릉동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지난 2019년 10월 29일(화) 대전광역시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18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학습공동체 우수사례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밥 할머니 마을의 3C습씨 학습활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18회 박람회에서는 창릉동과 함께 총 4개동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경기도 시군 중에서 최다 수상하는 성과와 함께 고양시 3개구(덕양구, 일산동

구, 일산서구)에서 유일하게 덕양구 4개동이 수상하는 최초의 성과였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 3,500개 주민자치위원회(자치회)에서, 총 5개 공모분야(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 제도정책)에 대해 총40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되어, 1차 서류심사 및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82건이 본선에 진출하여 최종 결정되었으며, 2018년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에 우수사례를 응모하여 주민자치분야 창릉동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7년 11월 6일 신청사 입주 후 총 76 종목의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재능을 개발하고 활성화 되도록 꾸준히 힘써왔으며 고양시 첫 관문 창릉동의 역사바로 알리기를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정하고 고양 동산초등학교와 학부모, 주민들에게 학습을 통한 공동체 정착에 기여한 성과를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전성원 주민자치회장은 몇해전만 해도 삼삼오오로 개발로 인하여 기존 청사가 수용되어 10여년 이상을 임시청사인 조립식 건물에서 문화프로그램 1개 종목도 없고, 더구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업무공간이 없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2016년 7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현재의 신청사에 입주 후 주민자치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위와같이 제17회와 18회 연속 전국박람회에서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한편으로는 문화프로그램 중 한국무용을 전속무용단으로 창단하여 지속적인 지원을하여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였고 2019년 11월 26일 전국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창릉동이 전국으로 홍보되어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창릉동을 방문하고 있다고 하였다.

창릉동 전속 한국무용단(해월) 전국경연대회 우수상 쾌거



창릉동주민자치회 전속무용단 (한국무용 "해월")은 지난 2019년 11월 30일 청주시에서 개최한 제3회 전국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창작품 "바람", 한국무용을 공연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해월 무용단은 창릉동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으로 창릉동 여성주부들로 구성되어 지난 2018년 2월에 창단하여, 김순옥 강사를 주축으로 약 15명은 집중적인 연습으로 창단 만 5개월 만에 6월 28일(목) 고양시가 주관한 2018년 고양시 39개동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2019년 4월 4일에는 고양시 대회에서 창작품 "부채춤"을 공연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11월부터는 장구춤을 맹연습을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기대가 되고 있다.

창릉동(昌陵洞) 변천사



2016년도 창릉동 주민센터 건물(조립식 간이 건물)

창릉동은 고양시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서울시 은평구와 매봉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창릉천을 경계로 삼송동, 흥도동과 접해 있는 마을이다. 또한 국도 1호선, 지방도 310호선, 시도 55호선 등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도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60

- 인 구 : 7,649 세대 / 16,972명(남 8,561명, 여 8,411명) - 2019년 6월 말
- 면 적 : 11.57km²(고양시 전체면적 267.41km²의 4.4%)
- 행정구역 : 19동 115반 (법정동 : 동산동, 용두동) • 공 무 원 : 11명 (창릉동행정복지센터)
- 복지수요현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보육료	장애인	장애연금	장애수당	월동난방비	독거노인
188	42	994	1,272	567	49	36	35	475

주요기관

- 공공기관 : 2개소(60사단, 창릉동행정복지센터)
- 학 교 : 4개교(용두초, 동산초, 창릉초, 동산고)
- 금융기관 : 5개소(신도농협 3개 지점, SC제일은행 지점, BK기업은행 지점)
- 유 적 지 : 2개소 (세계문화유산 등재 서오릉, 밥 할머니 석상공원)

창릉동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회 개소일 : 2000. 9. 8.(신청사 2017. 11. 6. 이전)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일 : 2006. 5. 10.(2016. 7. 12.)

고양군 하도면 동산리 → 고양군 신도면 동산리 →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 고양군 덕양구 동산동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고양군 하도면 용두리 →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 →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 고양군 덕양구 용두동 →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 현재(2019년) 창릉동?



창릉동(昌陵洞)



창릉동 옛 모습 (현재 이 곳에는 스타빌드 고양, 농협 하나로, 호반 21, 22 아파트,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건립)

1992년 고양시 승격 후 생긴 행정동의 명칭으로 창릉의 유래는 서오릉에 조선조 예종과 그의 왕비인 안순왕후 한씨의 능인 창릉이 있어 이곳을 창릉으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이능의 명칭에 따라 마을 앞에 흐르는 덕수천도 창릉천으로 바뀌었다.

동산동(東山洞)



동쪽 산에 있는 마을'이란 뜻을 가진 동산동은 지명이 생길 당시 고양군청의 위치가 옛 벽제 지역인 고양동에 있었으며, 고양군청에서 볼 때 고양시 동쪽 산말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동산동의 자연촌락에는 길(창릉)모퉁이, 응달말, 걱정머리, 큰골, 황새말 등이 있으며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 * 길(창릉)모퉁이 : 서오릉 창릉으로 가는 길 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응달말 : 그늘 저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걱정머리 : 여름이면 많은 비가 내려 홍수가 자주 발생하여 논밭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걱정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 큰골 : 동산동의 대표적인 마을로 마을에 자리잡은 골짜기가 매봉 안쪽까지 깊고 크게 들어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큰 골 마을 입구에 있는 있는 마을 비석



황새말 마을은 현재 22단지 고층아파트

- * 황새말 : 이 마을에 웅덩이가 있어 황새가 많이 날아와 머물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용두동(龍頭洞)



'용머리 마을'이라고 부르는 용두동은 서오릉이 생기면서 붙여진 지명이다. 경릉인 세조의 큰 아들 덕종 세자의 묘자리가 풍수지리상 마치 용의 머리 형태의 명당이라고 하여 용두(龍頭)라고 불렀다고 한다. 특히 용두의 형상은 용의 물을 마시려는 모습으로 한강을 향해 내달리는 모습이라고 한다. 참고로 서오릉은 용의 머리 부분, 대자동은 용의 배 부분, 파주 광탄은 용의 꼬리로 보아 각각 용두동, 용복원, 용미리로 불리기도 한다. 용두동의 자연촌락에는 우목골, 벌고개, 능말, 운하리 등이 있으며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 * 우목골 : 마을 모양이 우묵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 벌고개 : 벌고개라 불려진 이유는 서오릉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왕릉 자리를 찾기 위해 한양에서 유명한 지관(地官)이 내려왔고, 용두동 일대를 왕릉으로 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왕에게 추천하였다. 지관은 자리를 잡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곳을 떠난 지 한 시간 후에 땅을 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인부들은 지관의 말대로 땅을 파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비구름이 몰려오자 서둘러 일을 끝내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때 땅에서 검은 땅벌들이 날아오르면서 인부들을 공격했고, 한 양으로 거던 지관에게 날아가 침을 쏘았다. 결국 지관은 고개를 넘지 못하고 죽고 말았고, 그 때부터 이 고개를 벌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 능말 : 서오릉 주변 마을 중에서 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 * 운하리 : 이 마을이 있는 곳이 망월산과 창릉천이 있어 구름과 안개가 자주 내려와 앉아 밖에 서 볼 때 구름에 가려 질보이지 않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벌고개 도로 옆에 있는 안내판



서오릉에서 가장 가까운 능말(옛 모습)

마을의 명소



동산동에 있는 밥 할머니 석상

- 1 밥할머니 석상** 석상의 주인공은 조선시대 고양 지역에 실존하였던 인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이 지역에서 여성 의병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지며 주민들에게 밥을 많이 보시하였다고 해서 밥할머니란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소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모퉁이 공원

- 2 서오릉**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사적 제198호로 지정. 조선왕릉 중 동구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조선왕실 가족분을 이룬다. 세조 3년(1457), 왕세자 덕종이 죽자 풍수지리설에 따라 세자로 경릉이 들어서면서 8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의 창릉, 19대 숙종의 비 인경왕후의 익릉, 19대 숙종과 제1계비 인현왕후·제2계비 인원왕후의 명릉, 21대 영조의 비 정성왕후의 흥릉이 들어와 서오릉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또한 왕릉뿐만 아니라 원과 묘도 다수 있는데, 명종의 첫째아들 순회세자의 순창원, 영조의 후궁 사도세자의 어머니명빈 이씨의 수경원, 숙종의 후궁인 장희빈(숙선부대빈)의 대빈묘 등 총 능5·원2·묘1기가 있다. 소재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32 [문화재청]



서오릉 입구에 있는 유네스코 등재 비석

『역사이야기와 함께하는 도자체험』 실시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양동산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초등학생 3학년 학생(8개반 240명)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창릉동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도자체험"을 실시하였다.

동산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에서는 우리고장 이야기로 창릉동을 대표하는 고양 밥 할머니 석상이 수록되어 있고, 특히 주민자치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만화, 스티커 제작 등 특별히 제작된 워크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역사 강의 후 밥 할머니 석상 및 조선왕릉 서오릉을 지키는 석물인 무인석, 문인석, 석마, 석양, 석호 등을 아이들 상상력으로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해보는 도자 체험을 실시하였다.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드론 강좌 실시

"2019 주민참여예산"의 제안된 사업으로 금4,600만원을 지원받아 2019년 6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8회 수업과, 매주 일요일 7회 수업으로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성인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드론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그 동안 "드론에 관심이 있었으나 전문적으로 수강하기에는 수강료가 부담스러워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을 이런 강좌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수강하면서 드론을 직접 날려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며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리다고 하였다.

금번 드론교육 사업은 제4차산업으로 국방, 산업, 농업 등 현장에서 반듯이 필요한 교육사업으로 창릉동주민자치회는 고양시에 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어렵게 예산이 세워진 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드론 강좌를 개설한 것이다.

『체험형 역사교실 역사탐방』 실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창릉동, 용(龍)머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창릉동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2일(토) 관내 고양중학생 및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자치회가 제공한 관광 버스로 창릉동 일대의 대표 유적지인 고양 밥 할머니 석상, 세계문화유산 서오릉을 순회하는 역사 탐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역사 탐방은 관내 유적지에 대하여 쉽고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특별히 제작된 워크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선생님의 생생한 역사 강의를 들은 후 퀴즈를 맞추기 위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유적지 보존을 위하여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주민총회 개최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2019년 12월 21일(토) 13:00~18:00까지
고양동산초등학교 대강당(도담관)에서
제1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란?

타운 미팅 (town meeting)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정책결정권을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가지는 주민참여의 한 형태이다.

미국의 여러 주(州)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직접 민주정치)의 한 형태로서 이는 행정민원이 정책결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전에 제시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케 하는 토의(討論)를 통해 정책을 결정로 결정하는 형태다.

매년 봄 정기총회가 있고 경우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일정 이상의 인구를 초과하거나 주민간 이해 다툼, 유력자와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분리하여 새로운 타운 (-신도시)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타운 미팅 제도는 미국이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생겨진 것으로 18세기 미국 독립혁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킨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타운미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참석률의 저조, 토의의 기술적·이념적, 이익집단에 의한 악용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래에 와서는 여러 가지 수정된 형태의 타운미팅이 생겨 나고 있다.



2019년 신명나는 창릉동 경로잔치 성황리에 개최



경로잔치에서 노인들의 식사장면

창릉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각 직능단체가 협력하여 지난 5월 17일(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고 지역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오릉에 위치한 왕릉일가 음식점에서 관내 어르신 약500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

매년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각 직능단체와 뜻있는 지역 주민들의 찬조금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으며,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내부모임이 모시겠다는 일념으로 뜨거운 정성으로 식사대접과 초청한 국악인들의 흥겨운 음악으로 노인들을 즐겁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일일찻집 운영



창릉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019년 1월29일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민화합을 위한 일일찻집을 운영하였다.

일일찻집에는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주민들은 창릉동주민자치회에서 처음으로 찻집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듣고 □아왔으며 그 동안 소외된 계층간에 대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에 단초가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함께 정을 나누는 협치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나눔의 행복, 사랑의 이웃돕기 전달식

지난 2019년 2월 1일 창릉동지역(동산동, 용두동)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행복 사랑의 이웃돕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월 26일(토) '고양시 첫 관문 창릉동 일일찻집'을 개최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독거어르신 11가구에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생필품과 떡국떡을 창릉동 복지일촌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후원 물품을 받은 어르신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선물을 받게되어 감사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수 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역사특강 및 도자체험 실시

역사바로 알리기 사업의 교육으로 2019년 5월 30일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창릉동 직능단체 회원 및 주민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창릉동 역사 바로 알리기 특강 및 도자체험'을 실시하였다.

특강은 고양시 역사문화재 정동일 전문위원의 서오릉과 고양 밥 할머니에 대한 역사를 약 1시간에 걸쳐 강의를 하였으며, 곧이어 주민자치위원장 이덕연 도예가의 지도로 도자체험을 하였다.

금번 역사바로 알리기 사업에 동참한 주민들은 "어디에서도 들을수 없는 동네 이야기와 유래를 알게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우리 지역의 매봉, 창릉천과 세계문화유산 서오릉과 밥 할머니 석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많은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들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며, 우리 지역은 점점 도시화 되어가는 도농복합 마을로 세대간의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내고장 알리기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정착시키고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여 달라고 하였다.

본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창릉동 주민자치회가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눈 높이에 맞춰 우리동네 역사를 바로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작품전시회 개최

행정복지센터 청사 1층 로비에서 "2019년도 하반기 창릉동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수강생들이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과 솜씨를 선보이는 자리로, 2017년 11월 현재의 신청사 개청 이후 3번째로 개최하는 작품전시회이다. 1주차(12.02~08)에는 아동미술, 키즈공예, 미술심리가 전시되고, 2주차(12.09~12)에는 서예, 캘리그래피 등 성인들의 50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번 작품전시회를 통해 열정을 가지고 배운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회가 되었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작품전시회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열정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로 앞으로 도 주민들을 위해 교육, 문화, 건강 등 유익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데 힘쓰겠으며 현재 자치프로그램에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동일 전문위원의 특강



주민참여예산 지역총회 개최



지난 6월 28일 16시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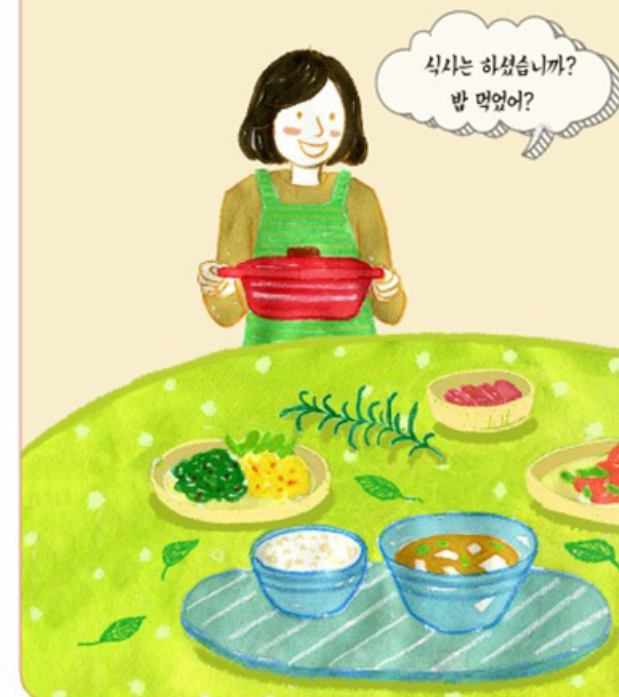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는 지난 5월부터 6월 25일까지 접수된 시민의견서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총 6건의 제안사업이 상정되었다.

제안자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투표한 결과 1순위로 쓰레기 분리장 설치, 2순위 고양

산동 골목길 주민참여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한 활성화 프로젝트, 4순위 주민자치와 창릉의 3세대가 드론과 함께 미래를 비행하다, 5순위로 매봉(맹봉)산 둘레길 정비, 마지막으로 서쪽의 조선왕 서오릉과 용머리 사람들이 함께하는 문화 여행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역총회에서 상정된 사업신청은 고양시가 주관하는 총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통해 선정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한국인에게 밥이란 무엇인가?



- 혼낼 때 : 너 오늘 국물도 얼음 잘 알아!
- 고마울 때 : 아~ 진짜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 안부 물어볼 때 : 밥은 먹고 지내나?
- 아플 때 : 밥은 꼭 챙겨 먹어.
- 인사말 :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 재수 없을 때 : 재 진짜 밥맛 없지 않냐?
- 한심할 때 : 저래서 밥은 벌어 먹겠냐?
- 무언가 잘해야 할 때 :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 나쁜 사이일 때 : 그 사람하곤 밥 먹기도 싫어~
- 범죄를 저질렀을 때 : 너 콩밥 먹는다~
- 명칭하다고 욕할 때 : 어우!! 이 밥통아~
- 심각한 상황일 때 : 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 무슨 일을 말할 때 : 그게 밥 먹여주냐?
-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 : 밥맛 떨어지!
- 비굴 때 : 밥만 잘 먹더라~
- 좋은 사람 : 밥 잘 시키는 사람.
- 최고의 힘 : 밥심.
- 나쁜 사람 :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녀.
- 알미운 사람 :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녀.
- 좋은 마누라 평가 기준 : 밥은 잘 차려 주냐?

한국인에게 밥이란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인은 밥상 공동체이다.



사랑의 고추장, 된장 담그기 행사

창릉동 새마을회(협의회장 이창석, 부녀회장 구정희)는 2019년 4월 8일(월) 창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고추장, 된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새마을 협의회는 "흙동아리인 평생돌보미 사업"의 일환으로 창릉동 부녀회와 지도자협의회 합동으로 추진하였고, 이날 직접

담근 고추장, 된장, 간장, 고추장 불고기는 관내 독거노인, 노인사대 등 저소득 노인 60여 가구에 전달하였다.





스타필드 고양점(박세효)이 창릉동장(황수경)에게 전달식

후원금 (일금 천만원) 창릉동에 전달

주식회사 스타필드 고양(점장 박세효)은 2019년 4월 30일(화) 창릉동(동장 황수경) 동장실에서 창릉동 저소득 취약계층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나눔일촌맺기 지원금(10,000,000원)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초까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저소득 중장년층 및 독거노인 20명에게 주 1회씩 15회에 걸쳐 「사랑의 반찬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비 소진으로 지난 3월에 중단된 사업을 이번 스타필드 고양과의 복지나눔일촌맺기로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추석을 맞아 저소득층 아동 5명에게는 장학금을 어르신 5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1,500,000원을 기부하였다.



피자 전달 장면

피자 10판 저소득층 전달

2019년 2월 21일(화) 관내 음식점 프랜차이즈(수퍼마켓 삼송, 원흥점 대표 고변숙)에서 후원한 피자 10판을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하였다. 수퍼마켓 삼송, 원흥점(대표 고변숙)은 지난해 7월 27일 창릉동 복지일촌협의회와 피자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7개월 간 매월 10판씩(총 70판, 약 120만원)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관내 70가정에 지원하였다. 고변숙 대표는 "2017년 7월경 개업하고 1년이 지나서 사업도 안정을 찾아 창릉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맛있는 피자를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일촌협의회를 통해 직접 만든 피자를 후원하게 되었다며 바로 만든 따뜻한 피자가 각 가정에 전달되어 맛있게 드시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였다."



독거노인 생신축하 잔치

함께라서 행복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어르신 생신 축하사업 실시』

2019년 3월 20일(수) 함께라서 행복해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으로 창릉동 찾아가는 어르신 생신 축하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사업은 관내 8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신날에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지역사회 이웃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녀가 있어도 왕래가 없거나 생활의 여유가 없어 특별히 생일을 챙기지 않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웃고 즐길 수 있도록 케이크와 과일, 음료 등으로 생신상을 차려놓고 생신축하 노래도 불렀다.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은 "할아버지와 사별하고 생일이라도 챙겨 주는 이가 없었는데 자식도 챙겨주지 않는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마운 마음이 크다"며 행복하다고 하였다.



허정숙 대표(삼송목은지)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커트하고 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미용실 운영

관내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미용실』은 2018년 7월부터 시작하여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창릉동 명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삼송목은지 대표 허정숙)의 재능기부로 수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은 비날하우스 내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여 겨울 내 자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커트를 해드렸다. 재능기부한 허정숙은 과거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음식점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내려 놓았던 재능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였다.

고양시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해야~

세종시가 2020년부터 주민세 전액을 읍·면·동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주민세 전액을 읍·면·동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환원된 주민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특정사업에 편성, 사용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읍·면·동별 주민세 수납액을 해당 읍·면·동에 배분, 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인상분 등 일부 주민세를 환원한 지방자치단체는 있지만 전액을 환원하는 곳은 세종시가 처음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내년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하는 세종시 주민세는 대략 11억4000만원으로 17개 읍·면·동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조치원읍으로 2억27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소정면으로 1900만원이다. 주민세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주민 수가 많은 곳이 수납액이 많다. 세종시 주민세 수납율은 대략 90% 전후로 당초 2017년 부과액은 12억6000만원이었다.

자율편성 과정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별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로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협의회는 읍·면·동장과 해당 지역 시의원, 시의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일반시민으로 구성한다. 15명 이내로 이미 정해져 있는 읍·면·동장과 시의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외에 일반시민은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선별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 전체 30명으로 각 예산협의회에 2~3명이 포함된다.

일반시민은 앞으로 매년 구성원을 바꿀 예정이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미 읍·면·동에선 시의 공식발표 이전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구성을 시작한 상황이다.

예산협의회가 결정했다고 모든 사업과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지는 않

는다. 세종시는 각 예산협의회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법적 문제나 절차상의 하자 등을 따져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소액인 만큼 절차상 하자 등만 없다면 그대로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13일까지 사업 등을 결정, 제안할 것을 읍·면·동에 요청한 상태다. 10월까지 시 내부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11월 11일까지 최종 확정, 시의회에 제출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환원은 그동안 시행하던 주민참여 예산제를 한층 발전시킨 것"이라며 "매년 계속할 계획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세 주민자치 재원 환원은 읍·면·동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세를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주민세는 개인 7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만~50만원이다. 올해 주민세 수납액은 조치원읍을 제외하고 면 단위는 대략 1900만~5800만원, 동 단위는 5500만~1억3600만원으로 예상된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핵심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범위 확대를 주민 중심의 예산편성을 실현합니다.
예산편성 뿐 아니라 그 이후 과정에도 주민참여 수단을 마련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안)

추진배경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회복으로 도·시·군 지역은 소원했던 이웃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필요
※ 우리나라 공동체지수는 OECD최하위 수준('13년 34위 → '14년 34위 → '15년 36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주민들이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
이를 위해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할 필요



추진방향

자치단체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실행하도록 유도하면서
-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인센티브를 상시 지원하고, 연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추진과정 및 성과공유
한편, 기존에 선정된 20개 시범 읍면동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정의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 생산, 전달하는 소지역 단위 혁신

개념설명

읍면동 중심의

- 마을, 읍면동 등 공간적 영역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 읍면동이 기점이 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만든다는 취지를 내포

공공서비스를

- '공공서비스'는 중앙부처 위임사무, 지자체 고유사무, 민간 위탁사무 등과 함께 민관 공동 생산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

민과 관이 함께

- '주민 참여'의 기본원칙을 강조하면서,
- '민관협력, 공공서비스 민관 공동생산의 원리를 사업원리로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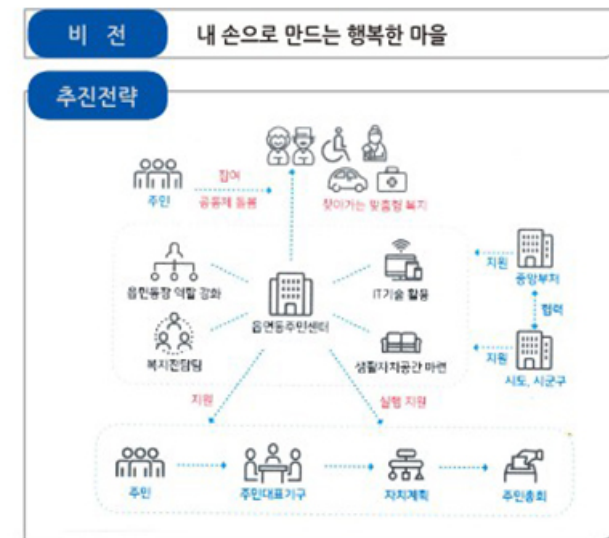
계획·생산·전달하는

- 공공서비스의 진행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의 주요 사업내용과 연결
* 계획 -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
생산 - 민·관 공동생산, 행정혁신 등
전달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소지역 단위 혁신

- 마을, 읍면동 등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활동
- 행정기관만의 혁신이 아니라 주민과 마을의 혁신, 사회혁신으로까지 확장된 개념

추진계획도



분 야	추진과제
1. 구상·구축·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1.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 2.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인력 확충관리 3.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연계모델 창출
2.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4.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5.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3.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6. 마을단위 지역사업 연계지원 7. 사회사업을 통한 특화 마을모델 창출
4.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8. 우수사례 발굴·확산 9.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지방 자치 제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는 수도에 있는 중앙 정부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전국을 형편에 맞게 나누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살림을 맡고,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해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 단체가 설립되어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지방 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물을 뽑아 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뿌리들은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요. 지방 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지역 사회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 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된다는 뜻이랍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개 가까운 자치 단체가 있어요. 이 가운데 기초 자치 단체로는 시, 군, 자치구가 있고, 광역 자치 단체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지요. 우리 친구들이 사는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에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대한민국에는 나라 전체의 살림을 꾸리는 행정부(청와대)와 정부를 감시하면서 국민 전체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어요.

이처럼 지방 자치 단체에도 일정 지역 안에서 중앙 정부 대신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지방 행정 기관(시·도청)과 지역 주민 대신 주민의 뜻을 전하고 지방 행정 기관을 감독하는 지방 의회(시·도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행정 기관과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시·도청에서는 시·도의 살림살이를 직접 맡아서 하며, 살기 좋은 시·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사업과 행정을 집행하지요. 그리고 시·도의회에서는 시·도 전체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며, 주민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는 일을 해요.

지방 의회에서 하는 일

- 1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법을 만들고 고치며, 그 지역의 모든 일을 의논하고 결정해요.
- 2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요.
- 3 지역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불만과 요구 사항 등을 심의하고 처리해요.
- 4 시·도청의 행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조사해요.
- 5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시장이나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들을 의회에 출석시켜 지역의 행정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요.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1949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어요. 당시의 선거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서울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만 주민의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라고는 할 수 없었지요.

기초 단체장(시·읍·면장과 광역 단체장(시·도지사)까지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 자치법이 바뀐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랍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 의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30여 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어요.

그러다가 1991년 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때 역시 단체장을 임명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체라고는 볼 수 없었지요.

그 뒤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의 의원과 단체장, 광역 시·시·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주민이 직접 지방 자치 단체장을 뽑아요

선거란 우리들을 대신하여 대표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해요. 나라 살림을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꾸려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할 사람을 선거로 뽑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학급 회장이나 전교 어린이 회장을 뽑듯이, 국민이나 지역 주민의 대표인 대통령, 국회 의원, 지방 의회 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등을 선거(투표)로 뽑아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거

선거종류	선거내용
대통령	흔히 '총선'이라고 부르며 5년마다 한 번씩 치러집니다.
국회의원	흔히 '총선'이라고 부르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져요.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서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장 및 군수를 뽑는 선거로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집니다.
지방의회의원	서울 특별시 의회 의원, 광역시 의회 의원, 도의회의원, 구의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집니다.